

진주보다 고운 '아침이슬' 김민기 "나 이제 천상으로 가노라..."

저항의 상징...대학로 소극장 '학전' 30년 이끈 작곡가 별세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설음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아침이슬' 중에서)

'아침이슬'의 작곡자이자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30여년 이끌었던 가수 김민기가 별세했다. 향년 73세. 22일 공연예술계에 따르면 김민기는 지방인 위암이 악화돼 지난 21일 세상을 떠났다. 전북 익산에서 1951년 태어난 고인은 경기중고를 졸업했다. 이후 1969년 서울대 회화과에 입학했지만 그림이 아닌 음악에 몰두했다. 고교 동창 김영세와 포크 듀오 도비도로 활동했으며 명동 청개구리집에서 공연을 펼쳤다. 당시 시대의 명곡 '아침이슬'이 탄생했다.

가수 양희은이 부른 '아침이슬'은 대학생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며, 특히 1987년 6월 항쟁 당시 시민들과 대학생들은 '아침이슬'을 부르며 민주화를 염원했다. 시대상황과 맞물려 들불처럼 퍼져나간 '아침이슬'은 저항정신의 상징 곡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침이슬'은 이보다 앞서 1971년 유신 정권 반대 시위 현장에서 불리면서 금지곡 판정을 받았다. 이 외에도 '늙은 군인의 노래', '상록수' 등

위암 투병 향년 73세 세상 떠나 '상록수'·'늙은 군인의...' 명곡 남겨 음악으로 독재정권에 저항 연극·뮤지컬 등 공연 문화 이어가 '노래를 찾는 사람들' 결성 음반도

도 금지곡으로 지정됐다. 김민기는 대학 졸업 후 생계를 위해 봉제 공장 과 탄광을 전전하기도 했다. 틈틈이 노래를 불렀지만 박정희 정권에 요주의 인물로 찍혀 온전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음악으로 독재정권에 맞서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1984년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결성해 프로젝트 음반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김민기는 다른 예술 장르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연극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1983년 '뭍춰선 저 상어는 상주도 없다더냐' 등을 연출했다. 1991년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개관한 후로는 기라성 같은 배우들을 배출했다. 알려진



'아침이슬'의 작곡자이자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30년 넘게 이끌어왔던 김민기씨가 지난 21일 별세했다.

대로 학전은 배움학(學), 밭 전(田)을 쓴 것으로 '뭍춰선 농사를 짓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내기할 모를 기르는 작은 눈을 빗댄' 말로, 이름처럼 후일 크게 성장할 예술가들의 토대를 닦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스타들이 학전을 거쳐 갔다. 고(故) 김광석을 비롯해 윤도현, 나훈산, 동물원, 강산에, 권진원, 유리상자 등이 이곳에서 노래를 했다. 특히 김광석은 학전에서 1000회 공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기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은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다. 그가 연출을 맡은 작품

으로 지난 2008년 4000회 공연을 달성했으며, 모두 4200회 이상 공연을 했다. '학전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설경구·김윤석·황정민·장현성·조승우가 무대를 거쳤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어린 이극 '우리는 친구다' (2004), '고추장 떡볶이' (2008) 등을 연출하며 공연 문화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 3월 15일 학전은 개관 33주년 만에 문을 닫기에 이른다.

폐관 당시 그는 "좀 더 열심히, 더 많이 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전을 기억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지역전문예술단체 디딤돌 백진선 음악감독은 "그의 음악은 우리 사회의 진실을 담아냈으며 지역 예술인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줬다"며 "특히 '아침이슬'과 '상록수'는 한국 청년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또한 "극단 '학전'을 통해 공연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가장 의미있는 업적"이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유산이 예술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족으로 배우자 이미영 씨와 2남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으며, 24일 발인 예정.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우치동물원서 태어난 벵갈호랑이 삼남매 중 마지막 남은 둘째도 폐사

신장기능 쇠약·유선 종양 발생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난 벵갈호랑이 삼남매가 모두 폐사했다. 22일 광주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6일 태어난 벵갈호랑이 삼남매 중 마지막 남은 둘째가 지난달 13일 숨졌다.

러브는 오빠와 동생 없이 우치동물원에서 지내다가 유선 종양이 온몸에 퍼져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우치동물원은 임실 공공방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러브의 화장을 마치고 동물원 헌전에 수목장했다.

벵갈호랑이 대호(수컷)와 민희(암컷) 사이에서 태어난 삼남매는 KIA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하는 뜻을 담아 '아이' '러브' '기아'로 각각 이름 붙여졌다. 첫째인 '아이'는 2019년 12월 30일 폐사했

고 셋째 '기아'는 신장 기능 쇠약으로 2022년 1월 4일 숨졌다. 벵갈호랑이 삼남매가 숨을 거두며 현재 우치동물원에는 벵갈호랑이 두 마리(타커, 호순)와 시베리아 호랑이 한 마리(호민)가 살고 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벵갈호랑이 삼남매

올 여름휴가 7말8초 승용차 타고 동해안으로

27일~8월2일 최다 출발...25일부터 18일간 특별 교통대책 기간

올해 여름휴가 기간 국내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승용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말 9770세대를 대상으로 '2024년 하계휴가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교통 수요가 예상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며, 국

내·해외여행 비율은 국내 76.6%, 해외여행 23.4%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비율은 전년 17.5%보다 5.9%포인트 높아졌다. 휴가 여행 출발 예정 일자로 7월 27일~8월 2일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1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8월 10~16일(12.2%), 8월 3~9일(8.8%) 등이었다. 국내 여행 예정지는 동해안권(25.1%), 남해안권(17.9%), 서해안권(11.3%), 제주권(10.0%) 순이

였다. 교통수단으로는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버스(7.0%), 항공(5.6%), 철도(5.2%), 해운(0.5%)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전년 특별대책 기간보다 4.4% 증가한 총 1억734만명(하루 평균 59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 대수는 537만대(전년 대비 5.1% 증가)로 예측됐다. 최대 교통량이 발생하는 8월 2일에는 599만대가 이동하며 지난해 최대 일 교통량(563만대)보다 6.3% 더 늘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지난 20년간 7~8월 광양이 가장 더웠다

평균기온 26.4도...전남연구원 '요즘 '핫'한 전라남도' 자료 발간

전남 22개 시·군 중 지난 20년간 7~8월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광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시·군 평균기온을 방재기상관측(AWS) 데이터 등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2004~2023)간 여름(7~8월)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광양(26.4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흥은 25.3도로 가장 낮았다.

기상청 데이터 분석에 따른 지난 30년(1994~2023년)간 전남의 7~8월 평균기온은 25.6도로 전국 평균기온(25.5도)과 비슷했다. 지난 30년간 관측된 전남의 최고기온은 1994년(7월 21일) 관측된 38.7도(장흥관측소)였다. 지난해의 경우 36도가 최고 기온으로 8월 5일(해남관측소) 관측됐다.

지난해 하루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인 열대일의 경우 담양(66일),곡성(66일)에서 많이 관측됐고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는 여수(23일), 목포(22일) 등 해안 지역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여름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은 2004년 이후 전국 평균기온을 웃도는 해가 증가하고 있어 도심지 녹지대 확충, 농촌 시간휴식 제 운영 등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요즘 '핫'(Hot)'한 전라남도'라는 제목의 그래픽 자료로 발간, 배포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로·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고흥군 공고 제2024-1252호

고흥 어선건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 어선건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초안)와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3.
고흥군 수

1. 사업의 개요
 - 계획 명: 고흥 어선건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일원
 - 면적: 102,353㎡
 - 사업기간: 2023년~2025년
 - 개발 방법: 공영개발
 - 사업시행자: 고흥군
2. 주민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2024. 7. 19 ~ 8. 20(21일간, 공휴일·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고흥군청 해양수산과, 고흥군 도양읍사무소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서면제출 (우편접수 가능: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기간: 공람기간 및 공람 종료부터 7일 이내
 - 제출내용: 산업단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 인정 등에 관한 의견 등
3. 합동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2024. 7. 31(수요일) 14:00
 - 개최장소: 도양읍사무소
 - 내 용: 산업단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내용
4. 기타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공고문은 고흥군청 홈페이지(요약문만 게시)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였음.
 - 기타 문의사항은 고흥군청 해양수산과(☎061-830-5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